

스파크플러스 300억 투자유치... “맞춤형 서비스로 승부”

시리즈B 투자 유치... 누적액 600억 콘텐츠 다각화로 부동산 종합사 목표 입주사 특성 맞춘 오피스 최초 도입

“위워크로부터 비롯된 업계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딛고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해온 실적과 앞으로 그리고 있는 비전이 굉장히 의미있고 투자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스파크플러스 시청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유오피스 시장에 위워크 상장 실패 리스크가 발생했지만, 안정적인 실적과 부동산 종합 운영사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는 데 성공했다.

공유오피스 스파크플러스가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8월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목진건 스파크플러스 대표가 3일 서울 중구 스파크플러스 시청점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지 금까지의 성과와 미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스파크플러스

투자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의 신규투자다. 이로써 스파크플러스는 설립 3년 만에 총 600억 원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갖게 됐다. 목진건 대표에 따르면 스파크플러스의 기업가치(밸류에이션)은 시리즈A 때보다 3배 높아졌다.

스파크플러스는 지난 2016년 11월 1호점인 역삼점을 연 후 3년이 지난 지금 서울 도심 지역에 총 1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입주사의 특성에 맞춘 커

스텀오피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평균 입주율은 약 95%다. 목진건 대표는 “오픈 전 선계약으로 70% 이상 입주를 유치하고, 오픈 2개월 내로 만실에 가까운 입주율에 도달한다”고 했다.

스파크플러스는 현재 테헤란로의 모든 역세권에 지점을 열어 강남 8개 지점을 갖고 있다. 올해는 시청과 광화문 지점을 열며 도심 지역으로 진출도 성공했다. 오는 2020년 1월에는 성수점을

열며 도심 외 지역으로 확장을 시도한다. 현재 준비 중인 강남 2·3호점까지 포함한 14개 지점 총 운영 규모는 1만 1000평이다.

스파크플러스는 오는 2021년까지 지점을 40호점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자산운용사 및 개발사와 협업을 통해 ‘부동산 종합 운영사’로 성장할 계획이다. 부동산 종합 운영사는 공간 운영을 전제로 건물 매입과 리모델링 단계에서부터 사업 구조 및 설계를 함께하는 기업이다.

목진건 대표는 “스파크플러스는 고객들이 업무·성공·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갖고 지원하는 본질에 충실하겠다”며 “상업용 부동산 전반에 걸친 사업모델 및 콘텐츠 다각화를 통해 ‘부동산 종합 운영사’로 성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최근 위워크가 수익성 문제나 오피스 리스크 등으로 상장 실패하면서 공유오피스 산업 전체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위워크는 공격적인 확장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공실률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곳”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스파크플러스도 투자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다.

목진건 대표는 스파크플러스는 안정적인 성장과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목 대표는 “위워크는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은 이뤄내지 못해, 수익성이 지금은 나빠도 전환될 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며 “아마 그런 부분이 위워크와 저희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오피스란 점에서 위워크와 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단면만 보실 때랑 실제로 저희 회사를 들여다보실 때 반응이 다르다”며 스파크플러스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한편, 이번 스파크플러스 시리즈B 투자에는 아주호텔엔리조트·코람코자산운용·스틱벤처스·인터베스트·아주B투자·우신벤처투자가 참여했다. 이중 아주호텔엔리조트는 스파크플러스의 초기 투자사 중 하나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metroseoul.co.kr

메쉬코리아, 라이더 인식개선 위한 BI 공개



메쉬코리아는 3일 물류 시장의 혁신과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 개선의 의지를 담아 물류 브랜드 ‘부릉’의 신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공개했다.

메쉬코리아는 혁신적인 종합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배달 라이더의 사

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BI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부릉 신규 BI는 기존 녹색을 좀 더 밝게 변경하고 화살표 그래픽 이미지를 부각한 것이 특징이다. 부릉 영문 철자 내에 ‘R’을 화살표로 디자인해 ‘물류 시장 혁신과 라이더의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메쉬코리아의 지향점을 이미지로 담았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한세실업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들이 한세실업 본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세실업, 신입사원 대상 베트남 연수

한세실업은 올해 정규직 전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베트남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베트남 해외연수는 근무평가를 통해 정직원으로 전환된 31명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4일부터 3박4일간 진행된다. 매년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는 한세실업의 최대 해외 생산법인인 베트남 현황과 현지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에서 신입사원들은 베트남에서 한세실업의 자체 개발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인 ‘햄스(HAMS)’를 체험하고 C

&TVINA 염색공장, 호치민 영업 오피스를 방문해 원단 제작 등 의류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이어 베트남 전쟁박물관, 티엔허우 사원 등 문화체험도 진행한다.

한편, 한세실업은 미국, 베트남 등 8개국에 23개 법인 및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제도를 비롯한 우수사원 뉴욕연수, 장기 근속자 해외관광, 직장 어린이집, 사내 외국어 교육 지원, 단기 MBA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공기질 맞춤 특화 필터... 코웨이 공기청정기

오염상태 따라 두달마다 필터 교체 전면 커버, 패브릭 소재 디자인 적용

웅진코웨이는 ‘코웨이 인테리어 공기청정기(AP-1019D)’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품은 공기 오염 상태에 따라 두달마다 맞춤 필터로 교체해주는 에어매칭필터를 탑재하고, 고급스러운 리얼 패브릭 커버 디자인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에어매칭필터는 사용 공간별 상황 및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실내공기질에 맞춰 특화된 ▲미세먼지집중필터 ▲이중탈취필터 ▲새집필터 ▲매연필터를 두 달마다 선택해 탑재할 수 있어 체계적인 맞춤 공기 관리가 가능하다.

어느 공간에 놓아도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특징이다. 이 제품은 코웨이 공기청정기 최초로 전면 커버를 감각적인 패브릭 소재로 디자인했다.



코웨이 인테리어 공기청정기.

방오 가공 및 발수 코팅으로 생활 오염과 물에 강한 리얼 패브릭 소재로 ‘샌드 베이지’와 ‘라이트 웜 그레이’ 두 가지 컬러를 갖춘 커버는 집안 인테리어 분위기 및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리얼 패브릭 커버는 추가 구매 가능하며,

탈부착이 쉬워 고객이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생활 편의성도 강화했다. 실내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공기청정기 상단부를 통해 수치로 보여줘 언제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제무선 충전규격의 고속충전 기능을 갖추고 있어 무선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폰을 공기청정기 상단의 충전영역에 올려 놓으면 빠르고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스마트 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실리콘 패드도 함께 제공한다.

코웨이 인테리어 공기청정기는 렌탈로 이용시 월 렌탈료는 3만3900원(등록비 10만원 기준)이며, 일시불은 95만원이다.

출시 기념 프로모션으로 12월 한달 동안 렌탈 등록하는 고객은 월 렌탈료는 2만9900원이며, 패브릭 커버인 ‘샌드 베이지’와 ‘라이트 웜 그레이’ 2종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주택가구조합-현대글로벌비스 협약... 업무효율 ↑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은 현대글로벌비스와 공동물류운송사업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우선 가구업계는 그동안 여러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견적과 협상을 통해 개별주문의뢰해 처리하던 것을 현대글로벌비스의 운송시스템을 활용해 간단하게 앱으로 견적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일지역 연간고정단가를 적용받을 수 있어 경비절감 뿐만 아니라 업무효율화도 기대하고 있다.

주택가구조합 이기덕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가구업계의 운송비 절감은 물론 인력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합 회원사 외에도 전체 가구업계로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난 8월부터 중소기업 가구업체들의 물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가구업체들의 운송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공동물류(운송)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승호 기자



주택가구협동조합과 현대글로벌비스간 공동물류 파트너십 구축 체결식에서 주택가구조합 박대원 전무(왼쪽)와 현대글로벌비스 김진곤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